

# 독해 Reading process

글쓴이: no.9 Lewandowski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1. ‘옵션’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옵션의 성격을 설명해주겠구나~ 예측해볼 수 있겠지요?)

2.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 옵션의 성격 즉, 옵션의 특성을 이야기해줄 것은 자명한데 이것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시켜주는구나~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3.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저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뒤에 예시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겠지요?)**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1.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옵션의 성격을 설명해주려나? 예측해볼 수 있겠지요?)

2.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한다. (탈레스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압착기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나?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3.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렸다. (응,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렸대네)

4.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

(아~ 이제야 앞에서의 문장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미래의 일정한 시기(수확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일정한 임대료)로 어떤 상품(압착기)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는 거죠)**

5.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올리브↑→ 빌리려는 사람 수↑→ 임대료↑ 이렇게 표시해보자.

**그럼 반대로 올리브가 흉작이면?**

올리브↓→ 빌리려는 사람 수↓→ 임대료↓ 가 되겠지요?)

6.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올리브↑ → 빌리려는 사람 수↑ → 임대료↑을 재진술한 것입니다 새로 형성된 임대료(높아진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주니까 차익으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7.홍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아하~ 홍작이면 그냥 옵션을 포기하면 되는군요~)

8.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사 둘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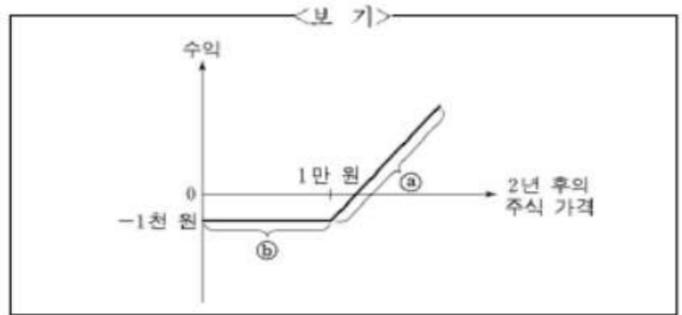
(옵션의 사고 팔 권리 중, 탈레스가 압착기를 통해 보여준 것은 옵션의 살 권리였구나~ 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1.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유리하면 행사하고'에서 아까의 올리브가 풍작일 때의 상황을 '불리하면 포기하고'에서 아까의 올리브가 홍작일 때의 상황을 각각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한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는 말을 보고 이 그래프를 떠올렸어야 한다.)

2.즉, 미래의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보자.

미래의 기초 자산의 가격(주식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1000원)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아닐까? 라고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3.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Maybe 그래프에 있는 1000원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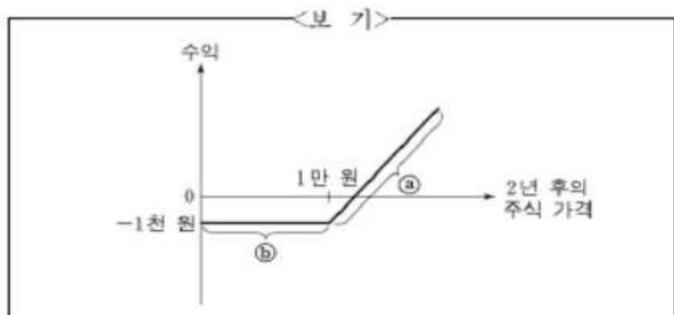
또한 탈레스가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한 조금의 돈 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 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A]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1.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쉽다.  
(주식 옵션의 사례를 통해 옵션의 성격을 설명해주겠구나~ 하고 가자.)

2.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원에 샀다고 하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당 1만원을 그래프의 1만원에, 1천원을 -1천원에 대응시키며 보자.)

3.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이 만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하자!  
1만원을 넘으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

4. 만약 1만 5천원이라면 1만 원에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그래프에서는 이것이 (15000원, 4000원) 된다.)

5.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 옵션을 포기하면 -1000원의 손실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래프의 -1천 원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6.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식 옵션을 주식의 가격 변화 → 수익에 영향을 준다는 말 즉, 주식의 가격 변화와 수익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7.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회사는 주식의 가격 변화와 수익의 관계 때문에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럼 경영자는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한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구나~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사실 일반화를 못시켰더라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는 태도를 취해도 무방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